

혁신정책세미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출장보고서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세부일정	3
III. 일정별 세부내용	5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I. 출장 개요

- 사업명
 - 국문명 : 혁신정책세미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 영문명 : Rapid Innovation Action Learning: Jordan/Lebanon/Syria

- 일시 / 장소 : 7월 3일(토) - 7월 8일(목) / 레바논(입출국일 포함)
 - 현지일정 : 7.4(일) - 7.6(화) / 레바논

- 주 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연구소(WBI)

- 국내출장자 : 정성철 前원장(STEPI), 임원혁 실장, 김장생(이상 KDI)

- 해외전문가

성 명	소속 및 직위
Charbel Nahhas	레바논 통신부장관
Jean-Francois Rischard	前 세계은행 부총재(Vice President)
Hedi Larbi	세계은행 중동(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국장
Omer Karasapan	前 UN 경제사회위원회 ICT부장(Chief)

- 주요내용
 - 혁신정책 소개 및 적용, 활용방안 공유
 - 한국 및 중동 국가, 선진국의 혁신정책 추진경험 공유
 - 참가국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및 공유(Action Plan)

□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혁신(Innovation)은 경제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국제사회는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과 선진국의 성공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유를 희망함.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책경험을 공유하고자 2006년부터 거시경제, 교육, R&D, ICT분야 등을 포함한 혁신정책 및 지식경제에 대한 정책연찬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부터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별 사전 공동연구 및 현지자문을 실시하여 참가국들의 정책수립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본 프로그램은 3단계 구성된 프로그램 중 최종단계인 최종세미나로 본 사업을 통해 KDI는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전략의 컨설팅 기관으로서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은 물론 참가국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고히 하여 아태지역은 물론 전세계적인 혁신정책 정보교류 허브로서의 역할 증대를 기대함.

※ 참고사항(혁신정책 컨설팅(Action Learning) 추진방향)

- 1단계(Preparatory Phase) - 사전진행단계
 - : 현지&해외(한국 포함)전문가 선정, Background Paper 작성 등
- 2단계(Field Mission) - 사전진행단계
 - : 대상국가 유관기관 방문 및 고위정책자 면담, 현지세미나 진행, 정책제안서 작성 등
- 3단계(Dissemination Seminar) - 혁신정책세미나
 - : 전문가 작성 정책제안서 및 참가국 참석자들의 Action Plan 공유

II. 출장 세부일정

사전행사 : 2010년 7월 4일 (일요일)	
18:00-19:00	참가자 등록
19:00-20:30	각테일 리셉션(KDI주최)

1일차 : 2010년 7월 5일 (월요일)	
09:00-09:30	<p>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Charbel Nahhas, 레바논 통신부장관 임원혁 실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Hedi Larbi, 세계은행 중동지역국장(Country Director) - 회의소개: Kurt Larsen, 세계은행연구소 기술혁신팀장
09:30-10:00	<p>기조연설</p> <p>혁신정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an-Francois Rischard, 前 세계은행 부총재 (VP)
10:00-11:30	<p>세션1: 혁신정책 소개</p> <p>사회자: Stefano Mocci, 세계은행 선임담당자</p> <p>혁신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rt Larsen & Justine White, WBI <p>지식경제를 통한 한국의 성공적인 혁신정책과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철 前 원장, STEPI
11:30-11:45	휴식
11:45-12:30	<p>세션2-1: 국가별 발표 및 정책제안서 논평(요르단, 레바논, 시리아)</p> <p>사회자: Kurt Larsen, 세계은행연구소 기술혁신팀장</p>

1일차 : 2010년 7월 5일 (월요일) - 계속	
12:30-14:00	점심
14:00-15:45	<u>세션2-2: 국가별 발표 및 정책제안서 논평(요르단, 레바논, 시리아)</u> 사회자: Kurt Larsen, 세계은행연구소 기술혁신팀장
15:45-16:15	휴식 및 자리이동
16:15-18:00	<u>국가별 토의 1</u> 사회자: 세계은행 & KDI
20:00-21:30	만찬(세계은행 주최)

2일차 : 2010년 7월 6일 (화요일)	
09:00-10:30	<u>세션3: 혁신정책의 추진경험과 정부의 역할</u> 사회자: Omar Bizri, 前 UN 경제사회위원회 ICT부장(Chief) <u>혁신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u> - 임원혁 실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u>혁신정책 조정 및 실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u> <u>(혁신정책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u> - Jean-Francois Rischard, 前 세계은행 부총재(VP) <u>요르단의 혁신시스템</u> - Abeer Arafat, 왕립과학협회 대외협력팀장
10:30-10:45	휴식 및 자리이동
10:45-12:15	<u>국가별 토의 2</u> 사회자: 세계은행 & KDI
12:15-13:30	점심
13:30-15:00	<u>세션5: 국가별 발표(최종)</u> 사회자: Kurt Larsen, 세계은행연구소 기술혁신팀장 토론자 - Hedi Larbi, Jean-Francois Rischard(이상 세계은행), 정성철(STEPI), 임원혁(KDI)
15:00-15:15	휴식
15:15-16:30	<u>폐회식</u> 좌장: Hedi Larbi, 세계은행 중동지역국장(Country Director) 임원혁 실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토론자: 국가별 참가자

Ⅲ. 일정별 세부내용

1 혁신정책세미나 1일차

가. 사업관계자 사전 협의미팅

(7.4(일) 17:30-18:30)

☆ 참가자 : Hedi Larbi 세계은행 중동국장, 임원혁 실장 외 7명

□ 참가국별 후속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

- 요르단: 부총리가 직접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일부 자금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국파트너인 KDI의 경우 시리아와의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함. 만약 KDI가 참여할 경우 다른 이번 사업처럼 다른 국가와 함께(예를 들면 터키)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함.
- 레바논: 개인의 능력은 출중하나 공공부분이 발달되지 못해 후속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체(정부)가 과연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임. 총리실 자문관을 통해 세계은행/KDI의 후속사업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임.
- 요르단: 후속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국가로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판단됨. 사업추진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의견: 후속사업을 구성할 때 한국 및 이스라엘과 같은 성공사례가 있는 국가에 직접 방문하는 Study Visit Program은 꼭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원혁, Rischard)

나. Keynote Presentation:

"Innovation Policy Revisited" - How innovation has changed and how innovation policy has to change as well

☆ 발표자 : Jean-Francois Rischard, 前 세계은행 부총재(Vice President)

- o 혁신을 현존하는 지식, 기술, 자원의 새로운 조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혁신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지식의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혹은 행동양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혁신의 범주에 들어감을 강조함.
- o 그렇기에 정부는 단순히 R&D 예산을 증가시키고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서만 혁신을 추구하지 말고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다양한 기관 및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오픈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의 확산활동 등을 통해 혁신을 자연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함.

다. Module 1: Innovation Policy - an overview

Innovation Policy - What, why, how?

☆ 발표자 : Kurt Larsen, Justine White, 세계은행

- o 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를 형성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당면한 지구의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활동인 점을 강조하고 혁신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산업 및 교육산업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점을 설명함.
- o 또한 70년대에 정부정책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육성정책이 오늘날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린 경험은 참가국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Jean-Eric(혁신정책 가이드북의 저자)의

정원사(Gardener) 이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원사로서 물주기(자금지원), 잡초제거(경쟁유도, 규제철폐), 영양분공급(연구, 교육, 정보 등)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론)을 소개함.

라. Module 1: Innovation Policy - an overview

Innovation Policy - Perspectives from Korea and its relevance to Jordan, Lebanon and Syria

☆ 발표자 : 정성철 前 STEPI 원장

- o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지식혁신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수출로 연결한 수출진흥전략이었다고 정리하고 한국정부는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기술습득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사실을 설명함.
- o 기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리더십과 자금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 함.

가. Module 3: Innovation Policy - “How to” and the role of governmen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Korea’s innovation policy

☆ 발표자 :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장

- 한국 경제발전의 주요 성공요소로 정부중심의 경제발전계획 수립 및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속적인 추진, 수출진흥정책 및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월간경제동향회의 및 수출확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물 제거 및 동기부여, 산업정책을 통한 전방&후방효과 창출, 우수인재육성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세부 추진현황을 설명함.
- 이는 결국 성공적인 정부개입을 통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요약할 수 있음. 다만 정부의 선택적인 개입이 특정 성공사례로 직접 연결되기보단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인적자원개발,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궁극적인 혁신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게 했음을 강조함.

나. Module 3: Innovation Policy - “How to” and the role of government
Government coordination and action: implementation of an innovation policy

☆ 발표자 : Jean-Francois Rischard, 前 세계은행 부총재(Vice President)

- 혁신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혁신지도(Innovation Map)를 만들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현실을 정확히 인식/분석하고 추진해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임.
 - 혁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분야를 정하였는가?
 - 세부추진전략을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도식화할 수 있는가?
 - 다른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적용해 보았는가? 등

- o 혁신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Top-Leadership, 고위정책자들이 포함된 위원회, 세부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실행조직과 혁신을 잘 알고 있는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각각의 역할을 소개함.

다. Module 3: Innovation Policy - “How to” and the role of government
Jordan Innovation Syste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발표자 : Abeer Arafat, 왕립과학협회 대외협력팀장

- o 2009년 GTZ(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rmany)에서 수행하였던 요르단의 혁신시스템 보고서(Study on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결과를 소개함.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중장기적인 국가혁신정책을 수립,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구 수립, 과학기술클러스터 숫자 축소 및 관계 재설정, 산학연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음.
- o 또한 요르단의 엘하산 과학도시, iPARK 인큐베이터 및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왕립과학협회, 과학기술상임위원회 등)의 역할 및 추진현황을 소개함.

라. Closing Session: The Way Forward & Panel Discussion

☆ 토론자 : Jean-Francois Rischard, 정성철, Hedi Larbi, 임원혁

- Q. 한국은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우선추진사업 및 전략을 어떻게 선정하였는가?
- A.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Top-Leadership을 바탕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진흥전략과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을 우선순위로 정함. 내수시장의 규모도 적고 시장도 성숙하지 않은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수출 최우선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닉슨독트린 이후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방위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게 되었음.

Q. 한국의 ODA자금(특히 미국지원자금)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였는가?

A. 당시 한국은 기술은 물론 기계도 없었기에 공장건설, 기계 및 장비구입, 그리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 육성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음.

Q. 한국의 혁신정책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A. 사실 한국경제발전 시기에는 혁신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한 시기였음. 그렇기에 정확히 말하면 과학기술육성정책이었음.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상업화 추구가 성공의 핵심요인이었다고 판단됨. 중요한 시사점은 산업발전 초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선진기술을 빠르게 받아드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나아가서 기술이 축적되면 응용력이 생기고 이는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킴을 명심해야 할 것임.

마. 향후 세계은행과의 공동사업 논의

(7.7(수) 08:30-10:00)

☆ 참가자 : Kurt Larsen, 임원혁 실장 외 2명

□ 혁신정책컨설팅(아프리카지역) 협의

o (Kurt) 세계은행은 2010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정책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국가는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으로 고등교육을 통한 혁신이란 주제로 진행하고자 함.

o (임원혁) 상기 국가의 경우 사실 혁신이라는 개념을 논하기에는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가 의문스럽다고 이야기하고 KDI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아울러 상기

국가들처럼 불어권 국가들에 익숙한 한국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 혁신정책컨설팅(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 후속사업 논의

- (임원혁) KSP사업은 한국정부와 협력대상국간의 양자협력프로그램으로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협력대상국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컨설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8년 터키의 혁신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력프로그램을 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함. 아울러 KSP처럼 현지수요조사 및 한국 Study Visit 등을 후속사업에 포함하면 그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함.

- 지난 일요일 이야기 한 것처럼 본 세미나에 참석한 3개 국가 중 시리아의 경우 한국과의 미수교 국가이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KDI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른 2개 국가(레바논, 요르단)의 경우 공동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함.

